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호 【루게 제23351호】 주체100(2011)년 2월 3일(목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6556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6556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공화국가가 펼칠 휘날리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무숨으로 사수하자!》를 비롯한 구호들이 나붙어있는 군부대에는 수령결사옹위의 열풍이 뜨겁게 끓어치고있었다.

오매에도 그러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부대에 모시는 끝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하여 군인들의 가슴은 해돋는 바다마냥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군부대 지휘부에 도착하시자 전지를 진동하는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위하여 한몫

바쳐 싸우자!>, <총포탄!>, <결사옹위!> 라는 우렁찬 구호의 함성이 맑고 푸른 2월의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정일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원홍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조선인민군 대장 현철해동지가 동행하시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작전지휘실에 들리시여 부대의 임무수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의 전체 장병들이 적들의 침략행동을 예리하게 주

시하며 경계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시고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사연구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지휘관들의 훈련정형을 알아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대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전법을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군사연구실들을 잘 꾸리고 작전지휘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실속있게 벌려 모든 지휘관들을 현대전의 그 어떤 어려운 전투임무도 능숙히 조직지휘할수 있는 높은 작전전투조작과 지휘능력을 갖춘 유능한 지휘관들로 준비시키고있는데 대해 만족하시면서 혁명적인 훈련기풍을 철저히 세워 모든 지휘관들이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지휘능력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회관을 비롯한 문화교양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업전행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군인회관을 문화교양거점답게 잘 꾸리고 정치사업을 참신하고 심도있게 진행하고있으며 모든 군인들이 충분한 문화정서생활을 하고있는데 대해 기뻐하시면서 사상사업에 언제나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군인들을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키워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원처럼 알뜰하게 정리된 지휘부의 구내를 걸으시며 부대 관리실태를 알아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에서 전투정치훈련은 물론 부대관리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참으로 눈부신 개진을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해 당과 운명을 같이하며 계급투쟁의 일선에서 근위대의 용맹을 펼쳐온 부대의 자랑찬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식당, 취사장,

부식물창고 등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대의 지휘관들이 후방사업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군인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준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 군인들이 당의 선군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기둥, 강력한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할영을 하시였다.

군부대 전체 장병들은 부대에 찾아오시여 무적의 담력과 지략을 안겨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덕을 베풀어주시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뉘그러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면서 사회주의조국방선을 금성철벽으로 지켜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지도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정성의학종합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새로 건설한 조선인민군 정성의학종합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영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정일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인민무력부장인 김영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김정각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홍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국방위원회 국장들이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가 동행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연구소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시였다.

연건축면적이 2만 1,000여㎡에 달하고 최신시설비들로 장비된 정성의학종합연구소는 우리 인민들의 체질과 특성에 맞으면서도 건강치료에 특효가 있는 여러가지 신약과 고려약들을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종합적이면서 현대적인 약품연구 및 제약생산기지이다.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으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뎌는 심장에 받아안고 온 나라 도처에서 날마다 대혁신, 대비약의 거세찬 폭풍이 일어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정성의학종합연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인민들의 건강증진

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고있다.

특히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은 6년전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수액공정, 주사약공정, 알약공정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놓고 효능높은 각종 의약품들을 다량생산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연구소책임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연혁실을 돌아보신 다음 새로 꾸린 약품검정소, 의약품연구소, 전자도서관, 문화회관을 비롯한 연구

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과학연구사업정형과 약품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최첨단의 실험기구들을 그쯘하게 갖춘 각종 연구실, 실험실들과 현대적인 제약설비들로 장비된 생산공정들을 보시면서 정성의학종합연구소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우리의 주체적인 제약공업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축성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정성의학종합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연구소의 과학연구사업진행정형을 자세히 알아보고 모든 과학자, 연구사들이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침으로써 새로운 약품들을 많이 연구개발하는데 대하여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여러가지 전염병들과 질병들을 치료할수 있는 의약품과 약편들을 개발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튼튼한 과학기술적토대를 마련하는데 대한 그들의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정성의학종합연구소에서 세계적수준의 여러가지 의약품들을 만들어냈을뿐 아니라 세계를 뒤흔 울라할수 있는 최첨단기술을 소유한것은 이곳 일군들과 과학연구집단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면서 과학연구성과로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

운에 있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스런 성과는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또 하나의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연구소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효능높은 의약품들을 보시고 약품의 질이 대단히 높으며 특히 인민들이 임의의 조건에서 사용할수 있는 상비약품들을 잘 만든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제약공업발전에서 정성의학종합연구소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연구소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치료에방사업의 기본수단의 하나인 의약품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물질적기초이다 하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품생산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우리 인민의 체질에 맞는 의약품들을 적극 연구개발하고 생산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효능높은 팜복합생체와 비타민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의약품들을 많이 생산하며 그 질을 높이고 포장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약품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항시적으로 필요한 상비약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고려의학과 신의학을 융게 배합하여 발전시키는데는 우리당이 걸치하고있는 시종일관한 방침인것만큼 여러가지 약성분이 포함되어있는 약초들을 리용하여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고려약의 자육 새기여가자, 민족기약과 야약을 위한 관현약 《통일무지개》, 합창 《위대한 내 나라》, 《전선에서 만나자》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

제약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도 역시 기초를 튼튼히 축성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부문 과학자, 기술자, 로동

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약품의 기초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연구소는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된 약을 생산하는 곳이므로 최상의 위생조건과 생산문화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연구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영예로운 초소를 지켜선 보건의사라는 자각을 가지고 약품생산에서 당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성은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주의보건의 속성이며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연구소의 모든 종업원들은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우리 인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제약부문의 중요한 초소를 맡고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간직하고 뜨거운 인간애를 지닌 인민의 참된 부부자로 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제약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치료예방

기관들에 더 많은 의약품을 생산공급으로써 강성대국에서 살게 될 우리 인민들이 무병장수하여 60청춘에 90환갑을 노래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성의학종합연구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정신을 가지고 당의 보건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제약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리라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정성의학종합연구소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선달그믐날에 친히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시는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서부터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장군님께서 안겨주시신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여갈 충성의 결의에 충당되여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은하수 《설명절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은하수 《설명절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음악회를 보게 된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하여 관람자들의 가슴은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에 나오시자 우렁찬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은 새해 정초부터 초강대국강령으로 인민생활대고조진군을 진두지휘하시며 끊임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치고있는 계승하는 종래하는 장군님께 전민군민의 다함없는 절대적인 정을 담아 삼가 절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설명절을 맞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당과 국가, 군대의 간부들인 김영남동지, 최영림동지, 리영호동지, 김정은동지, 리을설동지, 김철만동지, 김영춘동지, 전병호동지, 김국태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홍석형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김경희동지, 강석주동지, 변영립동지, 주상성동지, 장성택동지, 김정각동지, 김양건동지, 김영일동지, 박도훈동지, 최봉태동지, 태중수동지, 김명해동지, 문경덕동지, 리태남동지, 김광희동지, 주규창동지, 우동측동지, 김창섭동지, 오국렬동지와 평양시에 있는 당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음악회를 함께 보았다.

에국가의 주악도 시작된 음악회 무대에는 합창 《우리 민족 제일일세》, 《강성부흥아리랑》, 녀성독창 《멋있는 사람》, 《우정의 노래》, 색스폰6중주

《우리 집사람》, 녀성3중창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 남성독창과 남성방창 《군밤타령》, 남성5중창 《귀향의 노래》, 녀성6중창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실었소》, 관현악 《양산도》, 녀성기악4중주 《준마치너》, 노래편곡 《어느 사단 출신인가요》, 《영웅병사와 고향쳐너들》, 《군가에 발을 맞추자》, 혼성2중창 《아름다운 생의 자육 새기여가자》, 민족기악과 야약을 위한 관현악 《통일무지개》, 합창 《위대한 내 나라》, 《전선에서 만나자》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

혁명적기백이 나래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아버지장군님의 현명함 령도따라 선군런리마에 비하여 박차, 총공세의 박차를 끊임없이 가하며 승리의 신심과 락관, 희열에 넘쳐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노도쳐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백절불굴의 영웅적투쟁

정신을 잘 보여주었다.

관람자들은 승리의 함성인양 심장을 세차게 두드리며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들으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강행군현지지도로 온 나라 대고조전투장들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기 거세차게 타오르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렸으며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풍만한 민족적정서와 랑만, 혁명적열정이 넘쳐흐르고 세계에 우뚝 솟아오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센 기상이 도도히 끓어오르는 격동적인 음악회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

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은하수관현악단의 예술인들이 혁명적인 창조기풍을 발휘하여 우리 인민의 지향과 범위를 그대로 반영한 훌륭한 음악회를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공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은하수관현악단이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훌륭히 살리면서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풍부한 감정 정서에 맞는 작품들을 가지고 예술공연 활동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인민의 사랑을 받는 예술집단으로 되였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예술창조활동을 과감히 벌려 존엄높은 선군건설에 강성대국의 문제를 맡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6.18 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6.18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문덕군광정사업소 지배인 정명일, 평안북도체육지도위원회 산하단위 소장 계명선, 개천시송배전소 소장 류영식, 신의주화학섬유공장체육단 단장 김영수는 백두산지구를 훌륭히 꾸리는 데 이바지하는것을 마땅한 도리로 여기고 지원사업에서 앞장서고있다.

주체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는데 기여할 한마음안고 금성

청년출판사 기자 김정국, 무역성 산하 단위 로동자 김경애는 물적대원들이 로버적위훈을 세우도록 물심방면으로 도와주었다.

락랑구역 락랑2동 11인민반 리춘실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건설지원에서 로당원의 본분을 다하고있으며 해주시 선산동 14인민반 김연우, 평성시 남새 및 식품수매관리소 회계원 한계순도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조국이 기여하는 참된 애국자로 살려는 열의밑에 평양고려호텔 계산원

김금숙은 지난 10년간 돌격대를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였으며 해주시 학현동 66인민반 김순화도 지원사업에 성의를 다하고있다.

금성식품공장 로동자들인 리선희, 김명화, 신현주, 리혜영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어찌되는 혁명의 성지를 더할 꾸리는데 기여할 일념으로 많은 물자를 마련하여 보내 주었다.

봉연군광정사업소 부원 황영만, 문수우물공장 로동자 허동철, 평성시주력건설사업소 로동자 락광일, 평성고려

약공장 로동자 박윤희, 안주시사회교양관리소 로동자 김순영, 개천시도시시설사업소 로동자 기춘옥도 공사를 함께 책임지는 심정으로 돌격대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들을 보내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감격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앞으로는 혁명적정지, 혁명사적지건설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모든것을 다 바쳐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연락회 리사가 1월 29일 지체물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은하수관현악단의 예술인들이 혁명적인 창조기풍을 발휘하여 우리 인민의 지향과 범위를 그대로 반영한 훌륭한 음악회를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공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은하수관현악단이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훌륭히 살리면서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풍부한 감정 정서에 맞는 작품들을 가지고 예술공연 활동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인민의 사랑을 받는 예술집단으로 되였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예술창조활동을 과감히 벌려 존엄높은 선군건설에 강성대국의 문제를 맡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연교자가족들, 중국 단체들이 축하편지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은하수관현악단의 예술인들이 혁명적인 창조기풍을 발휘하여 우리 인민의 지향과 범위를 그대로 반영한 훌륭한 음악회를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공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은하수관현악단이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훌륭히 살리면서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풍부한 감정 정서에 맞는 작품들을 가지고 예술공연 활동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인민의 사랑을 받는 예술집단으로 되였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예술창조활동을 과감히 벌려 존엄높은 선군건설에 강성대국의 문제를 맡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2.16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준비위원회 결성

2.16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준비위원회가 1월 3일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는 민족회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경축보고회, 김정일화전시회, 도서 및 사진 전시회, 예술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기를 이어 빛나는 력사의 맹세

내 나라, 내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흐르는 물에도 백두산위인들의 고귀한 뜻과 애국의기가 뜨겁게 숨배여 있다.

조선혁명의 자랑찬 력사의 증언자가 되어 사름치며 흐르는 압록강, 이 력사의 강으로 마음달리려라면 지금으로부터 86년전 2월 《압록강의 노래》를 조용히 부르시며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기도 이 땅우에 인민의 새 세상을 일떠세울 줄은 맹세를 다지시던 10대의 우리 수령님의 모습이 숨엄하게 어리어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14살 어린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지하혁명투쟁과 두차례의 혁명전쟁,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두차례의 복구건설사업을,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사업을 빛나는데 이르기까지 특별한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력사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계시었던 포령나루터에 우리 마음을 세워보던 잊지 못할 추억들이 가슴속 깊이 물결쳐왔다.

류사리들처럼 살갓을 조국 땅을 떠나서 물살이 떠돌아다니는 노예처럼 산천을 잡아흔들며 일제의 총칼아래 신음을 하는 민족의 울분을 담아내고 목욕혀 흘려야 했던 수난의 강 압록강.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를 조국 땅을 위해 남기고 멀리져서, 잘은 보지않고 무겁게 옮기며 조선을, 조선을, 나가는 너를 떠난다, 너를 멀리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몸이지만 너를 찾았으니 조국 압록강을 건넌다, 압록강만 건넌다면 내 나라 땅이다, 그러나 나의 땅에 간들 내 너를 잊을수야, 조국이여, 나를 기다려다오라고 심장의 웨침을 머신 우리 수령님.

그날 우리 수령님께서 어찌하여 그 어느 빛나는 맹세를 다지시며 압록강 이 강을 건넌것이냐 했는가.

창덕학교졸업을 몇달 앞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머니께서 일제

경찰에 또다시 체포되었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속에는 일제침략자들에게 대한 적개심이 더욱 불타올랐다.

조국을 빼앗은 일제, 우리 인민에게 모진 고통과 재난을 들뜨우고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든 날강도 일제, 아버지의 원수, 일가의 원수, 조선 민족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사생결단을 해야겠다!

원수에 대한 이런 불타는 증오와 분노는 우리 수령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실 대용단을 내리게 하였다.

우리 인민의 자유와 존엄에 대한 가장 흉악한 교살자이며 우리 인민에게 참을수 없는 가난과 굶주림을 강요한 악독한 착취자, 약탈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독립하는 길은 오직 투쟁이라는 강철의 신념을 눈앞의 조국의 산야에 새기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경대를 떠나 일사를 재건 날 저녁 압록강기슭의 포령나루터에 이르시었다.

한바탕휘몰아치는 두 나라 지경에서 서신하는 조국산천을 돌아보시며 오래도록 눈보라속에 서계신 우리 수령님, 조국의 표적이 될수 있고 조국을 추억할수 있게 하는것이러면 무엇이든지 소중히 간수하고싶어서 우리 수령님께서 조약들을 하나 하나 되치고 손바닥에 감싸주시었다.

조국을 한시바빠 되찾고 그 모든것을 영원한 우리의것, 조선의것으로 만들고싶은 념원이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속에 불길처럼 타버리었다.

그런 심장의 열기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조용히 부르시었다.

그때 가슴허비는 설움과 비분을 안고 조국산천을 벗어났고 돌아보시며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신 우리 수령님의 심중에 깊이 자리잡고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때를 감회깊이 추억하시며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가 하고 생각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니 어린 마음에도 비감을 금할수 없었, 나는 그때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눈앞에 그려보며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었다라고 쓰시었다.

그날의 맹세를 지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나날에도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시며 혈전의 길을 헤쳐나가지었다.

주제 27 (1938)년 8월 어느 날이였다.

이날 유격대원들은 금강비밀근거지의 밀영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오락을 하게 되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시었다.

그이께서 부르시는 뜻깊은 노래는 구월거리 대원들의 가슴속에 후련하게 깎여들었다.

노래를 마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산천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들끼리는 대원들을 둘러보시며 자신께서는 조국을 잘 알아야 한다는 아버님의 말씀을 받들고 고향 만경대에 나가 공부할 하다가 아버지께서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었다는 소식을 듣고 천리길을 달려 후방(당시)의 포령나루터로 압록강을 건넌다고 하시면서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며 다진 그날의 맹세를 지켜 조국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하라하며 이룩할 각오를 더욱 굳히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의 맹세를 지켜 임혹한 시련속에서도 억척만땅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기어 원수를 쳐주어야 할것이다는 강의를 의지와 필수의 신념으로 항일혁명투쟁을 벌이시어 마침내 조국을 해방하시었다.

우리 수령님의 그날의 맹세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더욱 빛을 부리고있으며 영원한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제 57 (1968)년 7월 어느날 포령혁명

사적지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압록강 기슭의 푸른 숲도 크나큰 감격에 휩싸인듯 쉬임없이 설레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시며 조국해방의 큰 뜻을 품고 서계시던 력사의 그날을 그리보시는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다.

이러 압록강역에 올라서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포령나루터는 력사적인 곳이라고, 수령님께서 14살의 어린신 나이에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포령나루터로 압록강을 건넌시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14살 어린 나이에 혁명의 큰 뜻을 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의 길에 나선 위대한 지도자는 오직 수령님밖에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만경대혁명일가의 불멸의 투쟁업적을 간직한 포령혁명사적지에 기록한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눈가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여가시던 위대한 부모와 확고한 결심이 력력히 어리어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날의 그 숭고한 의지로 오늘날 조국과 인민을 위한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에 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아버지수령님께서 헤치신 혁명의 천리길을 끝까지 이어 이 땅우에 기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실 선군명장의 신념과 의지를 가슴우뚝 걸맞고있었다.

올해의 당보 첫호에 게재된 노래 《승리의 길》.

정령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선군혁명천리길을 승리와 영광의 천리길로 빛내여가시는 천만민민의 신념과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그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날 매일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 따라서 시작한 이 혁명을 기어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승리해갈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혁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길에서

친부모의 심정으로

주제 69 (1980)년 1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개원을 앞둔 창평원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랄의실에서 새행의 옷장들을 보여주었다.

그 옷장으로 말하면 창평원에 농로 설비와 비품은 그 어느것이나 다 최상의 수준이어야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것들이었다.

수십년전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함흥시의 한 지구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물맛이 좋은 중심지구의 수도물을 부러워한다는것을 알게 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사실을 그저 스쳐 지나지 않으시었다.

그이께서는 곧 해당 부문 일군들을 부르시어 함흥시의 상수도망배정형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었다. 그리시고는 왜 그곳 지구 주민들에게 합홍시

스처버릴수 없는 일

중심지구와 같은 물을 끌어다주지 못하는가고 물으시었다.

일군들은 그 지구의 수도물이 수질상 나쁘지 않은데다가 거기까지 수도물을 끌어가자면 방대한 공사를 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인민의 소원을 안 이상 스처버릴수 없다고, 이제라도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인민들이 바라는것이러면 그 무엇이든 다 해결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가 부르며 일군들은 가슴 졸임을 금치 못하였다.

얼마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물수 취해주시던 지회에 의하여 그곳 지구의 집집마다에는 새수원지의 물이 흘러들게 되었다.

가장 훌륭한 생활조건을

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인가 등에 대하여 세세히 료해하시었다. 그리시고는 식당안의 여러곳에 눈길을 보내시다가 문득 난방을 어떻게 보강하는가고 물으시었다.

뜻밖의 물음에 일군들은 모두가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그때는 무더운 여름철이어서 난방문제가 화제에 오르리라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었다.

이유하여 한 일군이 전기방열기로 보강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였다.

무엇인가 가능해 보시는 듯 잠시 말씀이 없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식당안의 난방을 전기방열기로 보강한다는데 식당부로서 보아 물을 덥히기 어려울것 같고, 그러나 잘 따져보고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가장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정령 그이의 마음속엔 우리 인민만이 짝 차있다.

본사기자 백영미

평가사업을 방법론있게

만경대구역 대평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결국 그것을 맡아 수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달려있는것이다.》

언제인가 초급당비서 김승찬 동무는 농산제 1차업반에 나가 작업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문제점을 포착하게 되었다.

알고보니 일부 작업원초급일군들은 매일 진행되는 로력일평가를 매우 실무적으로 하고 있었다.

어느날 초급당일군은 작업원 2분은 로력일평가를 철저히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하나의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분조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난 장동무의 로력일평수가 생각보다 낮았기때문이었다. 로력일평가가 어찌 정확하게 되지 못한것이냐.

(평소에 말이 적고 일을 잘하는 실농군인데...)

그의 이런 의문은 그후 분조에서 함께 일을 하는 리동무에게 풀리었다.

얼마전부터 정동무는 분조장으로부터 개별일무를 맡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날 그는 같이 일하는 분조의 림동무가 앓는 몸으로 거름을 나르면서 몸시 힘들어한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부터 정동무는 자기 일도 하면서 정동무의 시간을 내어 그의 거름운반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가 로력일평가에서 높은 공수를 받았을 때는 그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도 해주었다. ...

그런 원인으로 하여 정동무는 실적이 그다지 높지 못했었다.

(그래서였구나!)

원인이 명백한 이상 방법도 명백하였다.

초급당일군은 분조의 로력일평가가 농산제1차업반의 열의를 발동하는 방향에서 진행되도록 적극 며들어주었다.

우선 로력일평가를 공정성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새해공동사실을 받아안은 각지 현대화된 돼지공장들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축산물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사리원돼지공장, 강계돼지공장, 평북돼지공장, 함주돼지공장에서 잇달아 축산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킨데 이어 뜻깊은 2월에 들어서어서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새끼생수와 육성률을 높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가 고기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는데 그들의 식생활수준을 높일수 있을지 민주적 사담담 식량소비량도 줄일수 있습니다.》

인민의 주닭공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많은 대용먹이를 생산하고 첨가제원료도 넉넉히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가 이미 마련된 토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생산력을 발전시키면 단백질식품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습니다.》

공장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시말씀을 받들고 축산물생산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경제조직사업을 그 어느때보다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생산장성의 중요한 예비의 하나를 먹이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는데서 찾은 일군들은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리도록 대중을 발동하였다. 일군들은 종균생산

축산물생산에서 높은 실적 기록

각지 현대화된 돼지공장들에서

각 도당위원회들에서는 현대화된 돼지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시말씀을 지침으로 삼고 인민생활향상대전선의 선구자가 될 불같은 마음으로 축산물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각 도의 축산부서 일군들은 현대화된 돼지공장들에 내려가 사양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를 알리면서 축산물생산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들을 찾아주고 있다.

각지 현대화된 돼지공장들에서는 뜻깊은 올해의 축산물생산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생산의 과학화수준을 높여나가는데서 찾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리원돼지공장의 일군들은 전두현장에 나가 작업원들에게 공장시설의 사양관리를 깊이 해설해 주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고있다. 일군들은 현장에 눌러앉아 과학적이든 현대적인 우리 식의 종축산체계를 세워 새끼생산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몸을 들이고있다. 그들은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 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이미 돼지의 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할수 있게 돼지우리를 개선해놓았다. 그리하여 차례로 우량품종의 새끼돼지를 충분히 생산 공급할수 있는 원종체계를 세우고 새끼생산과 육성률을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 높여나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강계돼지공장에서는 사양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최첨단 돼지재의 선구자가 될 열의에 넘쳐 먹이량을 높이고

고기생산을 체계적으로 늘어나갈수 있는 여러건의 기술혁신안을 도지사 생산에 받아들이는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평북돼지공장에서조차 축산물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공장에서는 돼지의 생리특성에 맞게 우리의 위생조건을 개선하고 방역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엄격한 방역체계를 세웠다. 그리하여 돼지의 육성률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훨씬 높여나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동사실사업관철에 한사 팔강이 펼쳐나선 함주돼지공장의 사양관리를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 나가면서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잘하고 있다.

본사기자 정영철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진행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제 59차전원회의가 1월 31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전원회의에는 녀성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중앙과 지방의 녀맹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올해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녀맹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로성일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때의 공동사업시설을 받들고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나라에 총공세의 산을일기 메이리치게 하는데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각급 녀맹조직들이 동맹원들의 정진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동맹사업을 지향시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올해 총공적전의 주공전선인 경공업부문의 녀맹조직들에서 중심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는데 총력을 집중하며 지방공업공장의 생산을 높이고 원료원천을 보강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과 좋은일하기 운동 등을 힘있게 전개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녀맹원들이 인민경제 선행부분, 기초공업부문에 대한 지원사업을 활발히 벌려 대고조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데 기여하며 녀맹조직들이 선군생활문화창조의 된바람을

일으켜 나라의 전반적면모를 강성대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키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녀맹조직들이 인민생활향상대전선에서 자기의 사명감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며 일군들의 사업기공과 일본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적인 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나감으로써 선군시대 로동자의 분분을 다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먹이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신의 주닭공장에서

계계를 완성하여 대용먹이 생산을 늘일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리었다. 그들은 생산현장에 나가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발동하여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종균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그 과정에서 기술자들은 해당 부문의 긴밀한 관계망에 우리 식의 종균생산방법을 완성하고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기 위한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다. 그리고 배설물, 부산물들을 대용먹이로 적극 리용하기 위한 생산장비도 완성하였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대용먹이생산공정을 짧은 기간에 꾸리고 종균생산을 앞세워 새해 첫 전부터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본사기자

200여건의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들

지난해 기술혁신과제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3대혁명소조원들은 조국의 큰 진도우리가 걸머지고 최첨단의 패턴도 우리가 쥐는 자신만만한 투지와 배짱을 안고 신들메를 더 바짝 조이였다.

늘 높여, 더 빨리 비약하기 위해서야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높은 세계를 보는 주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과학기술고지를 점령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들이 이 곳 3대혁명소조원들은 정초부터 새로운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전투를 힘있게 벌리었다.

학습을 통해 얻은 새로운 과학기술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신심과 활기에 넘쳐 생산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에서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적조를 강화하면서 소조원들은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주체비료생산공정의 정상운영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배짱있게 풀어나가고있다.

최성진동무는 낮은 온도조건에서 뛰어난 후민산함량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위하여 피라는 탐구의 나날을

보내고있다. 리철만, 리철웅 동무들은 지난해 완성한 가스발생공정의 DCS제어의 정상가동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박영철, 송은혁동무를 비롯한 소조원들이 열분해, 고압물리에틸렌생산공정의 온도조종회로를 새롭게 설계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기술혁신의 불바람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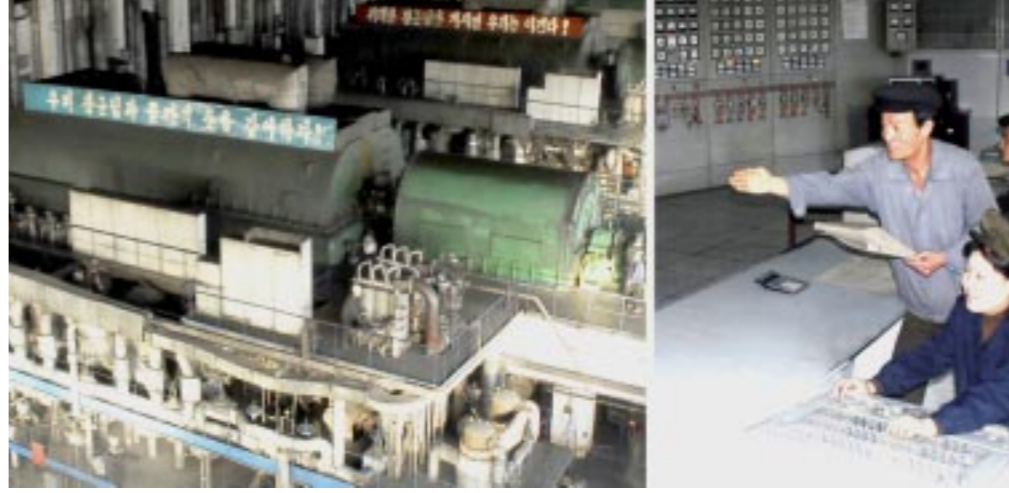
과학기술로 만사를 해결하자. 이런 투지와 배짱을 지니고 남흥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지난해의 성과에 토대하여 보다 큰 승리를 향해 계속 즐기치게 될것이라고다.

오 철 권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전기를 보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장정일 특음



은혜로운 사랑속에 맞는 뜻깊은 설명절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귀중한 삶의 유람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의 기상이 나뉘는 내 조국땅에 설명절이 왔다. 어디서나 심장을 팡팡 울려주는 기적과 전변의 새 소식이 터져나오고 비약의 천리마를 타고 내달리는 인민들의 박한 숨결이 가슴쿵쿵 울려오는 이 땅위에 밝아온 설명절은 끝없는 화희와 랑만, 우리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다.

설명절을 맞이한 내 나라 방방곡곡에 끝없이 밝아오는 민족의 화희! 설음식준비로 바쁜 너인들의 기쁨 넘친 모습이며 설명절 아침 색동치고 리를 입고 웃어뜰들에게 세배를 하는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이 어찌오는 집집의 창가들, 민족놀이와 민족음식품평회로 흥성하는 거리와 마을.

설명절을 맞은 우리 인민들에게 더욱더 풍만한 민족적정신과 기쁨을 안겨주며 수도 평양과 전국의 도시와 마을들에 이채롭게 펼쳐진 불장식, 꽃장식들과 전통적인 민족로리봉순준비로 들끓는 급양봉사당들, 회한하게 전변된 새 모습을 자랑하며 문을 활짝 열고 손님들을 기다리는 중앙동물원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정서생활기지와 극장, 영화관들...

들러볼수록, 새겨볼수록 우리 민족이 제일이고 민족의 우수성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아름답게, 풍만하게 가꾸어가는 내 조국이 제일이라는 확신을 가슴깊이 새겨주는 이런 화희들은 정녕 어떻게 마련되고 펼쳐진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적극 살렸으며 그것을 혁명파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였다.」

어느해 1월 2일이였다. 또 한해를 승리의 자랑찬 해로 빛내인 긍지높이 온 나라 인민이 새해를 맞이한 기쁨속에 휩싸여있던 그날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항을 돌보시며 분당 시간을 보내고계시였다.

물소 일군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어 나라의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문득 설명절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시였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곤련하고 성실하며 정경의강이 강하고 용감하며 리를 귀중히 여기고 레의덕이 밝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있고, 우리는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설명절에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대로 설에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명절도 우리의 전통적인 명절, 풍습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습을 중시하시며 설명절을 더 크게 쇠도록 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가 더 일군들을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설명절을 우리 식으로 잘 쇠도록 함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것은 처음이 아니었던것이다.

오래전 어느해 정월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설명절에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옛날 우리 사람들이 설명절을 즐겁게 쇠는것을 전통으로 하여왔다고 하시면서 이런 설명절을 우리 식으로 크게 쇠고 앞으로 설명절을 어떻게 더 잘 쇠는가를 연구해보라고 과업을 주시였다.

다. 그로부터 얼마후 설명절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설명절을 우리 식으로 쇠도록 하니 인민들이 좋아한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명절을 즐겁게 쇠도록 한것이 그리도 기쁘시어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모습은 그대로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력사에 유례없는 그날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 헤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진군길에 힘있게 펼쳐나갔다.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위한 장엄한 투쟁은 장군님께서 또 다시 설명절을 두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우리의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시기 위하여 그리도 마음쓰시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품포앞에 일군들은 깊이 머리를 숙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우리 인민들이 설명절을 쇠어도 우리 식으로, 우리 민족고유의 전통대로 쇠도록 해주시려고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설명절을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어떤 민족성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우리 인민들이 설명절을 보다 즐겁고 의미있게 쇠도록 온갖 사랑의 조치들을 다 취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설명절을 맞은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더해주시리라 하는 뜻이다.

에서 차례로운 경축공연무대들도 펼쳐도 해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에겐 정령 끝이 없었다.

우리 명사들이 있는 초소를 찾아 전선길을 쉬임없이 이어나가면서 설명절준비정형도 알아보고 명절을 즐겁게 쇠는 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도 보여주시며 따듯이 축복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선시찰소식을 들을 때면 우리 인민은 간절히 그리움과 고마움으로 심장을 적시곤 하였다.

설명절의 기쁨과 랑만이 넘치는 가정에서, 거리에서, 유희원과 극장에서, 봉사당들에서 웃음속에, 행복속에 우리 인민이 명절을 즐기던 그날에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 행복을 지극히 언제나 눈바라보듯 전선길에 계시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자를 두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우리의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시기 위하여 그리도 마음쓰시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품포앞에 일군들은 깊이 머리를 숙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우리 인민들이 설명절을 쇠어도 우리 식으로, 우리 민족고유의 전통대로 쇠도록 해주시려고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설명절을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어떤 민족성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우리 인민들이 설명절을 보다 즐겁고 의미있게 쇠도록 온갖 사랑의 조치들을 다 취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설명절을 맞은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더해주시리라 하는 뜻이다.

경흥거리의 이채로운 풍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어있는 사회인것만큼 인민들의 건전하고 풍부한 사상문화생활조건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합니다.》

평양에는 수도중심부에 장광음식점거리와 같은 급양봉사당거리가 있을뿐 아니라 보통장거리의 경흥거리처럼 이채로운 봉사구역도 있었다.

이곳에도 유명한 대동강맥주집이 있었다. 여름뿐만아니라 겨울철에도 경흥거리의 대동강맥주집은 늘 손님들로 흥성거리었다.

현대적으로 꾸러진 이 맥주집에서 맛있는 것이 연하고 깨끗한 맛으로 상쾌한 감을 주고 기쁨이 좋은 여러 종류의 대동강맥주를 봉사하고있다.

《외국사람들도 왔다가 놀라와하는 이런 훌륭한 봉사당에서 즐거운 생활을 마ومت 향유하는 우리 군

로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인민의 봉사자된 영예로 가슴부풀어오르는 저희들입니다.》

이것은 대동강맥주집 책임자 김성무동무만이 아닌 경흥거리의 모든 봉사자들의 심정이다.

경흥거리에는 군밤, 군고구마매대, 파배기매대, 송사랑매대와 같은 많은 야외매대들도 있었다.

결혼식식당은영으로 소문난 경흥거리가 또 대동강맥주집, 야외매대 등으로 소문나고있다. 민족적향취가 넘치는 음식들도 눈길을 끌고있다.

설명절을 맞은 수도의 그 어디나 그리하듯이 현대적인 봉사당들이 그쁘하게 늘어진 경흥거리에도 설명절 분위기가 완연하다.

설명절을 맞으며 경흥거리의 주방들도 흥성거리었다. 경흥관에서는 설명절을 앞두고 땀을 흘린 많은 원자재들이 보장되어 로리사들의 손에 불을 달고있다.

경흥관 일군들과 봉사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이 시민들에게 뜨겁게 안겨지도록 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 바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사적이 깃들어있는 경흥관의 봉사당에서 일한다는 남다른 영예를 안고 설명절봉사준비를 민품없이 갖춘 일군들과 종업원들.

인민들의 설음식상에 나라도 더 특색있는 음식들을 올리기 위해 여러모로 원심을 쓴 경흥관 로리사들이 내놓은 민족음식가지수는 다양하다. 풍성한 식탁을 마주하고 기뻐할 인민들의 모습이 어찌와서인가 경흥관 종업원들의 얼굴마다에서는 설명절봉사준비로 드러난 속에서도 웃음이 절절 울렸다.

야외매대들도 민족적향취가 넘치는 음식들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평고구마와 갖가지 민족음식들은 대고구의 진군길에서 뜻깊은 설명절을 맞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기쁨과 랑만, 민족적근거와 혁명적열정을 더해주게 될 것이다.

사랑과 행복의 노래소리도 그칠줄 모르는 경흥관에서 더욱 특색있는 대동강맥주집이 진행된다.

따뜻한 햇빛이 있어 온갖 꽃이 피어나듯이 은혜로운 사랑의 품이 있어 행복의 꽃들이 만발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경흥거리의 풍경은 참으로 이채롭다. 그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의 내 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화희의 풍경, 위대한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있는 우리 인민만이 꽃피울수 있는 즐거운 생활이다.

본사기자

기쁨을 안겨줄 특색있는 봉사

각지 급양봉사당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인민을 위한 일을 하여야 합니다.」

올해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들이 설명절을 뜻깊고 즐겁게 쇠도록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속에 수도 평양을 비롯한 각지의 사회급양봉사당들에서는 특색있는 설명절봉사를 진행하게 된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우뚝 솟아있는 유류관에서는 고기장만국수와 평양평면을 비롯한 민족음식들을 봉사하게 된다.

여러가지 명료리 이음편치는 유류관의 로리전문식당에서는 갖가지 민족로리들과 함께 철감사료리, 자라로리, 메추리로리와 같은 고급로리를 봉사하여 명절을 쇠는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게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민족음식의 종합적인 봉사자라고 불러주신 청류관에서는 평양평면, 평반국수와 함께 여러가지 떡, 국밥들과 전골, 불고기로 리를 비롯한 수십가지의 민족음식을 봉사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도를 받는 영광을 지닌 향만대중식당에서도 설명절을 맞은 인민들을 위해 우동, 교즈, 짜장면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음식들과 여러가지 빵, 맛있는 로리들을 봉사하게 된다.

창광음식점거리의 식당들과 각 도특산물식당들, 평양면역, 평남면역, 평양메기탕집을 비롯한 수도의 수많은 급양봉사지들에서도 특색있는 명절음식들을 인민들에게 봉사하게 된다.

수도 평양만이 아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일떠선 회령판과 청망음료집, 내포국집, 토끼고기전문식당, 강양이전문식당,

짜장면집, 전골집 등 전문식당들이 줄지어 늘어난 회령판의 음식점거리에서도 설명절을 맞은 시민들을 위한 봉사준비를 높은 수준에서 갖추어놓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강계담내포국집과 만포각에서도 담내포국집과 갖가지 로리, 국수를 인민들에게 봉사하게 된다.

사리원시 민족거리에 일떠선 급양봉사지들과 합동시의 신촌관을 비롯하여 지방특산물식당도 유명한 각 도의 수많은 식당들에서도 특색있는 봉사를 진행하여 설명절 분위기를 더욱 높여주게 될것이다.

명절분위기를 한껏 돋구는 급양봉사당들에서 당의 은정 넘치는 봉사를 받으며 인민들은 아버지장군님을 높이 모시며 끝없이 받아안을 북이 많은 우리 생활에 대하여 가슴깊이 새겨안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즐거워 온 설맞이 평양 어린이 식료품공장에서

하였다. 설명절을 맞으며 공장문화관에서는 예술소품공연이 출연하는 공연이 진행되었다.

무대에 나선 출연자들의 얼굴에도, 편담시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도 기쁨과 랑만이 한껏 어그러져 있었다.

이제 그렇지 않오라. 경애하는 장군님을 공장에 모시었던 영광의 그날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어머니당의 숭고한 후대판을 꽃피우기 위해 이같은 투쟁을 벌인 그들이였다.

조국의 미래를 위하는 뜨거운 마음을 지닌 그들은 지난해 일리마에서 집단

적혁신의 불길을 새치게 일으켜 인민경제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뿐만 아니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풍우유가루직장을 현대적으로 새로 꾸리기 위한 능력확장공사도 힘있게 벌리였다.

기쁨과 행복속에 서만 흐르는 설맞이모임이 아니였다. 지나온 한해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회망한 레일로 질풍같이 내달릴 새로운 신심과 랑만이 넘쳐 맞는 설명절이었다.

올해에 공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생산경쟁활동의 컴퓨터화실현, 풍우유가루직장 현대화공사완공, 새 제품개발 등 많은 목표를 내걸었다.

과제는 방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지만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강성대

국의 년대기에 아로새기며 아이들을 양으로 떠맡는 세상에 다시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길이길이 전해갈 줄은 결코 그 그들의 심장은 새치게 뉘였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많은 꿈을 꾸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자라나는 세 세대들을 위해 배풀어지는 어머니당의 숭고한 사랑을 더 활짝 꽃피우는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직평일군인 김정일동무 한사람의 심정만이라.

경애하는 장군님의 후대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받으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이차하게 투쟁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올해의 총진군에서 승리자가 되려는 것이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정정과 의리로 불리는 그 맹세를 실고서 그들이 부르는 신념의 노래소리는 내 조국의 푸른 하늘로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진욱 리명남

유엔기구가 우리 나라를 세계 주요 바다마름류양식국으로 인정

【평양 2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유엔식량농업기구(이하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우리 나라를 세계 주요 바다마름류양식국으로 인정하였다.

1월 31일 미국의 VOA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기구는 이날 발표한 《세계수산양식백서》에서 2008년에 조선에서 김과 미역, 다시마 등 바다마름류 약 44만톤을 양식을 통해 생산하였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를 세계 6대 바다마름류양식국의 하나로 꼽았다.

이것은 인민생활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바다양식업을 대대적으로 벌일때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중시로 된다.

유엔기구(UNFAO)가 우리 나라를 세계 주요 바다마름류양식국으로 인정하였다. 유엔기구는 2008년 1월 31일 미국의 VOA 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유엔기구는 이날 발표한 《세계수산양식백서》에서 2008년에 조선에서 김과 미역, 다시마 등 바다마름류 약 44만톤을 양식을 통해 생산하였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를 세계 6대 바다마름류양식국의 하나로 꼽았다. 이것은 인민생활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바다양식업을 대대적으로 벌일때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중시로 된다.

유엔기구(UNFAO)가 우리 나라를 세계 주요 바다마름류양식국으로 인정하였다. 유엔기구는 2008년 1월 31일 미국의 VOA 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유엔기구는 이날 발표한 《세계수산양식백서》에서 2008년에 조선에서 김과 미역, 다시마 등 바다마름류 약 44만톤을 양식을 통해 생산하였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를 세계 6대 바다마름류양식국의 하나로 꼽았다. 이것은 인민생활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바다양식업을 대대적으로 벌일때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중시로 된다.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해주시 선산동 14 인민반 김연우녀성

너였던 김연우녀성은 노래를 부르곤 하였다. 바다를 건너건너 언덕을 넘어 넘어 해변쪽에 불빛이 빛나네 실실이 드러온 새나라를 돌리리 불어불어 새 나라 노래해서...

그때면 그의 눈앞에는 해방 후 처음으로 제 집과 재방을 가지고 행복에 겨워 눈물짓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조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으며 이 세상에 조국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습니다.」 초소의 밤사들을 위해 또한 밤을 새우는 김연우녀성의 가슴속에 전화의 나날 고향산천에 울려가던 방아소리가 조용히 울리고있다.

싸우는 고지의 인민군용사들에게 보낼 원호미를 쟁내려 어머니가 즐겨 타고 하던 발방아소리. 그걸에서 10대의 어린 소

녀였던 김연우녀성은 노래를 부르곤 하였다. 하지만 전화의 나날 원호미의 총포소리를 짓누르며 기운차게 울리던 전선원호의 방아소리를 김연우녀성은 어느 한시도 잊은적이 없었다. 그 방아소리를 안고 그는 지난 수십년 세월 변함없이 원호의 길을 걸어왔고 자식들과 손자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웠다.

수십년 세월을 인민반장으로 일해오는 김연우녀성은 인민반의 정정령, 영예군인, 인민군후방가족들이 존경하며 따르는 그들의 친할아버지이다.

어머니조국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각오와 열정을 안고사는 김연우녀성이기에 지난 기간 원군사업뿐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도 수많은 찾아하였다.

해주시에 높이 모신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을 더 잘 모시기 위한 사업과 혁명의 성지 백두산지구를 더 잘 꾸리

기 위한 사업 그리고 시안의 중요대상건설지원사업을 비롯하여 당과 수령, 조국과 국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바친 그의 지성을 다 이야기하자는 편이 없다.

애국의 길에 바친 그의 삶은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값높이 빛나고있다.

얼마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누가 보진말것, 알아주진말것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내는 그에게 분에 넘치게도 은정깊은 감사를 안겨주시었다. ...

김연우녀성의 머리에 백발은 질다. 하지만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을 받드는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이 그의 결심이다. 그의 가슴속에 사는 오늘도 전화의 그늘에 울리던 원군의 방아소리가 쉬임없이 울리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경일

설명절에 즈음하여 외부성에서 유럽나라 대표부성원들과 친선모임 마련

【평양 2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주제 100년 설명절에 즈음하여 외부성에서는 2일 주조 유럽나라 대표부성원들과의 친선모임을 마련하였다.

모임에는 유럽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 협조대표와 유류나라들사이의 판례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설명절에 즈음하여 외부성에서 유럽나라 대표부성원들과의 친선모임을 마련하였다. 모임에는 유럽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 협조대표와 유류나라들사이의 판례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설명절에 즈음하여 외부성에서 유럽나라 대표부성원들과의 친선모임을 마련하였다. 모임에는 유럽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 협조대표와 유류나라들사이의 판례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알제리대통령을 작별 방문

김동계 알제리대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월 26일 알제리에서 부메랄리 알제리대통령을 작별방문하였다.

그는 또한 김명남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석상에서 대통령은 조선의 통일일은 절박한 시대적요구라고 하면서 외세의 간섭이 없이 북남대화와 협상을 통해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조선의 의지와 발기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원칙

어느날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저의 집 문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천치구 청년관합동기독교 일군들이 문명화, 정몽필동지들이였습니다.

「남씨가 추위에는 성인이 건강이 걱정된다면서 우리 집 사람이 이것을 가져다주라고 하더군요.」

「속담에 좋은 보약을 구해왔는데 한번 써보구요.」

이러며 지성이 깊은 생활용품과 보약을 내놓는 그들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식술입니다

저같은 평범한 영예군인을 위해 이처럼 늘 친혈육의 정으로 마음을 쓰는 그들이였습니다. 제가 가정 이룰 때에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성의껏 결혼상도 차려주고 철따라 물에 꼭 맞는 옷가지들과 별신도 저에게 먼저 주어야 마음이 개운해졌는데 그들이였습니다.

우리 집을 찾을 때마다 제 일민저 아래목이 따뜻한가부러 질어보고 식의 가지수도 해아려보면서 저의 생활이 어떻고 어떤지 물어보는 그들이였습니다. 그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수도의 거리가 즐거움 명절 분위기로 흥성거리고있다. 설명절을 맞은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민족최대의 경사로 2월의 명절을 앞두고 맞는 설명절이어서 사람들의 가슴은 더

없는 행복과 기쁨에 넘쳐있는 듯하다. 설명절을 맞은 수도의 거리에 만발한 웃음꽃,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 따라 언제나 승리를 펼쳐온 우리 인민의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의 분출이다.

뜻깊은 설명절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다시금 굳게 마음을 다지고있다. 인민생활대고주의 불길을 더욱 새치게 지켜올려 올해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리라고.

글 및 사진: 리명성



김연우녀성 (가운데)

